#어떻게 해도 망한다

스타트업 조직문화 폭망하기

jyitstory.com
company.jyitstory.com

"스타탄생."

조직문화 폭망하기 시리즈2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란 속담이 회사만큼 어울리는 곳이 있을까? 봄맞이 기분을 낸다고 화사한 노란색 스커트를 입고 간 적이 있다. 그날 들은 조언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런 옷은 친구 만날 때나 입으라는 권유. 그날 황당함을 억누르며 나의 스커트가 화제가 되어 영광이라고 대꾸했다가 회사에 미친 자로 소문이 났던 경험이 있다.
회사에서는 살얼음판 위 걷듯 조심하지 않으면 금세 모난 돌이 되고는 하니 그저 조심히 걷는 수밖에… 예쁜 스커트를 입는다는 것 말고 일을 잘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 어느 축구선수가 TV에 나와 선배에게 패스를 안 하면 그날 분위기가 안 좋거나 혼이 났다는 에피소드는 비단 축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들어온 일을 적시에 손볼 것 없이 처리하다 보면 이름이 날리게 되어있고. 이름이 날리면 일이 몰리게 된다. 그렇다고 선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 어디 업무의 비효율을 지적이라도 할라 치면 라이벌 회사 스파이처럼 욕은 욕 대로 먹게 되고, 이제 일 잘하던 그 직원은 튀는 돌, 모난 돌이 되어버린다. 시켜서 한 일도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회사를 다니게 된다. 이런 지루하고 당연한 결과 앞에 예전 선배 말처럼 "회사에서는 나대지 말고 숨만 쉬어라"가 어느 조언보다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스타트업에서는 웬만하며 튀어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웬만하면 은 비가 오는 날 반바지는 괜찮아도 래시가드는 안될 것 같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 드리는 타협점) 선배고 어느 때는 감독도 필요 없어서 묻지 마 크로스가 주특기인 "개발"도 떨어진 기회를 얻게 된다. 슈퍼스타는 이런 분위기에서 태어나게 되어있다. 미드필더인지 공격수인지 적성을 찾아갈 수 있고 키퍼가 공격까지 하더라도 잘만 하면 장땡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니 일을 잘하게 되고, 게다가 성실까지 하게 되는 수순이다. 평범한 직장인에게 경력을 넘어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기회를 얻는 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이다.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슈퍼스타를 HR 담당자인 나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모두가 인정하는 스타가 아니었다. 스타트 업에서는 몇몇 사람의 일 잘한다는 소문과 수시 평가가 이루어지니, 그것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로또 수준의 연봉 인상률을 누가 동의를 하겠는가? 겸손하지 못한 태도도 미칠 노릇이었다. 조기축구회에서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니 마치 메시가 빙의 한 듯이 수평을 뚫고 감독 수준의 권한을 부리는 것, 인간은 나이와는 관계없이 그냥 그런 것이었다. 회사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슈퍼스타는 반드시 숫자로 말해야 한다. 그냥 쟤는 일 잘해, 최고 다로 이루어지는 수시 평가는 안 된다. 기어이 그에게 왕관을 주고자 한다면 그게 맞는 숫자를 만들어라. 매출 기여도 혹은 업무 개선도 혹은 고객 평가이든 다른 조직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쥐여 주었어야 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최우선의 원칙은 매출 없는 회사에는 스타도 없다는 것이다. 몸값을 견뎌낼 수 있는 매출부터 만들어야 회사도 조직도 살 수 있다. 국민투표 워너원도 꼼수가 있는 판에 작은 회사의 스타 키우기는 얼마나 어려울지 고민하고 또 고민 후에 만들어낸 슈퍼스타. 그가 그제야 맞는 역할을 할 것이다.

sanjim0414@gmail.com
company.jyitstory.com